



6·13 지방선거 레이다 D-2



송갑석 “6·10 항쟁정신 헛되이 하지 않을 것”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10일 6월 항쟁일을 맞아 광주 금남공원에서 구도청 앞 5·18민주광장까지 행진하는 ‘민주에서 평화로’ 행사에 참석했다.

송 후보는 “1987년 당시 전남대 학생으로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현장 선봉대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며 “광주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나가 돼 한목소리로 싸웠던 시절, 그때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의 결과 지금의 민주국가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완성된 민주주의’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31년 전 발생한 6월 항쟁은 우리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의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잔악했던 군사독재에 맞서 온 몸을 던져 불의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열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화 발전에 힘쓰고 앞장설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진 “노동자·서민 위한 ‘맞춤형’ 복지대책 절실”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10일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빠르게 오르는 물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노동자·서민들의 가계부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사회보장을 더욱 촘촘히 해서 서민들을 보호하고 중산층이 살맛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광주시 전체 고1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더라도 연간 100억원이던 충분하다”며 “차별없는 무상급식과

헌법에도 보장하는 교육의 정신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위기상황에서 급박한 생계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다”며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무보증·무담보 대출이 가능한 ‘광주주먹밥 은행’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먹밥 은행은 광산구 일대에 서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성환 “중단없는 발전 사전투표율로 보여줘”

김성환 민주평화당 동구정장 후보는 10일 “동구가 광주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유는 동구의 중단없는 발전을 바라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며 “남은 본선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사전투표에서 광주 동구 투표율이 28.92%를 보였다”며 “중단없는 동구 발전을 바라는 동구민들의 열망

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도 지난 8일 동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4번을 외치며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도 잘 볼 수 있었다”며 “선거운동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동구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진 “당선시 3선 출마포기... 월급 사회환원”

임우진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는 10일 올해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당선 땐 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며 월급 전액을 장학금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이날 거리유세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되면 제 인생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는 “민선 7기 4년 임기동안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다”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일을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짓고 장기적인 서구발전 계획을 잘 수립해 민선 8기 서구청장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는 “무보수로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면서 “구청장 월급과 소득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인 “민생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는 1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1.0% 수치와 관련, “구청장이 되면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1.3%로,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

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며 “민생경제의 큰 축인 자영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자칫 우리경제의 숨통을 죄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후보는 또 “서민금융진흥원 경험을 살려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통해 자영업 살리기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방 “전국모범 여성·청소년 친화도시 완성”

이은방 민주평화당 북구청장 후보는 10일 ‘여성·청소년 친화센터’를 통해 북구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여성·청소년 친화도시로 완성이 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재참여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임금·비정규직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학교 밖 위기정

소년에 대한 맞춤형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청소년친화센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설계와 정책자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성·청소년 문제 등은 현장활동가와 함께 정책개발에서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72시간 총력 선거운동 체제 돌입”

이정현 민주평화당 광산구청장 후보는 10일 총선 당일인 13일 0시까지 72시간 총력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평화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에 대해 “광산은 광주정치 고비마다 물줄기를 바로 잡아 왔고, 이번에도 일당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물꼬를 더 주고 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어 “앞으로 72시간은 광산의 힘으로 광주의 정치를 바꾸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과 민주평화당 후보들의 승리는 물론 정당득표율에서도 압승을 거두야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총력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 지방선거 막판 판세 ‘부동층’ 향배 주목

## 민주, 광역 14곳 승리 기대... 한국, ‘6+α’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지지율 정체 고전

6·13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받아들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유권자가 많게는 40%를 넘고 있어 이른바 부동층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최소 14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며 마지막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상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제주지사를 제외한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시장의 경우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00곳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전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승리기준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6개 지역 플러스 알파(α)’ 확보로 잡고 있다.

한국당이 ‘우세’로 꼽은 지역은 대구·울산·경북·경남이고, 경합우세로 꼽은 지역은 부산·경기·충남 등이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텃밭인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박근혜가 이미 한국당으로 돌아섰다가 승리

를 자신하고 있다.

한국당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육설과 일과 불륜 의혹,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이 이슈로 부상해 라이벌인 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이슈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는 서울시장 선거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지금까지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1위는 커녕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2·3위를 주고받으며 ‘앞치라뒤치라’ 2등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막상 뚜껑을 열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유권자들과 여론 견제를 원하는 중도보수 지지층이 안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당의 기반인 호남지역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낸 곳은

전남지사와 전북지사 등 2곳이다. 기초단체장 후보도 총 44명 가운데 전북(11명)과 전남(15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 가운데 목포와 익산 등 일부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실제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총력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은 광역비례·기초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투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 스타급 광역단체장 후보가 부족한 데다 대부분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 만큼 현실적으로 내린 선택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부동층의 표심은 관심사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 적게는 10% 수준에서 많게는 40%를 훌쩍 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과 대조적으로 실제 부동층 규모는 크지 않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한국당은 부동층 중 상당수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라고 보고 있다. ‘보수전멸’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민주당의 기세가 강한 상황에서 보수진영이 걸음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결국 투표장에 나와 한국당을 찍을 거라고 기대다.

/연합뉴스

www.koreanair.com

2019년 6월 세계 하늘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세계 항공업계의 UN총회인 IATA 연차총회를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항공이 유치하였습니다

75 IATA ANNUAL GENERAL MEETING 2019 SEUL 2-4 JUNE 2019

75차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연차총회 일자: 2019년 6월 2일(월)~4일(화) 세계 290여개 항공사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세계 항공 발전을 논의하는 IATA 연차총회를 대한항공이 정성으로 준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의 위상을 높여 나갑니다

KOREAN AIR